

# 이슈&ETF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자금 동향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개인 순매수, 거래대금 측면에서 쏠림 가속화
- 반도체 ETF 내 쏠림도 발생. 기존 레버리지/TOP 10 계열을 중심으로 순매도 발생
- 6월 중순 이후 반도체 자금 유입은 TOP 2 비중이 낮은 ETF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리밸런싱으로 TOP 2 외 종목 비중 증가, 이전 대비 자금 반영도 강해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쏠림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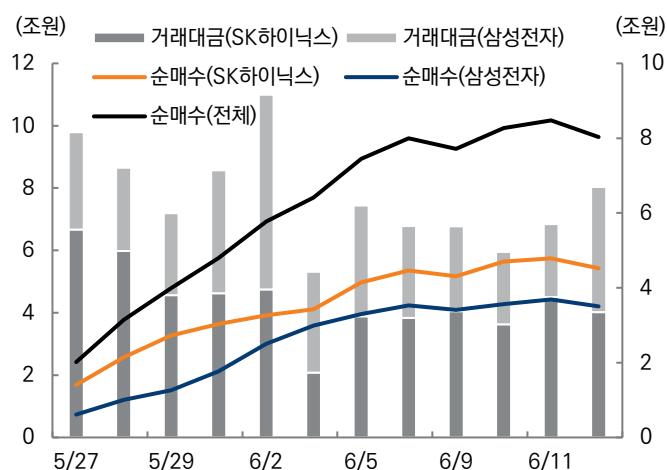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5/27) 이후 자금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14개 종목)의 상장 이후 12거래일 간 누적 거래대금은 92조 3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ETF 시장 전체 거래대금(단일종목 제외, 347조 원), 개별 종목 전체 거래대금(769조 원) 대비 27%, 12%에 해당된다(그림 1).

개인 순매수는 2거래일(6/9, 6/12)을 제외하고는 순매수가 유지되며 +8조 원을 기록했다. 이전 자료(「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영향」, 5/7)에서 전망한 적극적 유입 규모(+5조 3천억 원)를 상회한 수치다. 순매수 금액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각각 +3조 5천억, +4조 5천억 원으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순매수 금액이 29% 많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국내 ETF 시장에서는 쏠림이 더욱 가속화 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하기 이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반도체 산업 ETF에 대한 개인 순매수 규모는 +6조 9천억 원이었으며 배당/스타일에 +5조 6천억 원, 중소형주(코스닥)에 +4조 9천억 원 등이 유입됐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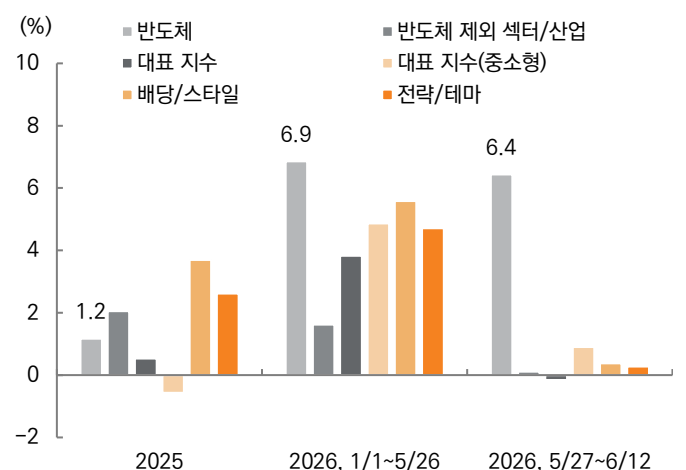
그러나 상장 이후 12거래일 동안 반도체 산업에 +6조 4천억 원이 유입된 반면, 나머지 한국 주식형 ETF 전체에는 +1조 5천억 원이 유입되는데 그쳤다. 그 결과 2025년 이후 누적 순매수 기준 개인 순매수 1위 카테고리는 반도체 산업으로 변경됐다(다음 장 그림 3).

그림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추이 (레버리지 14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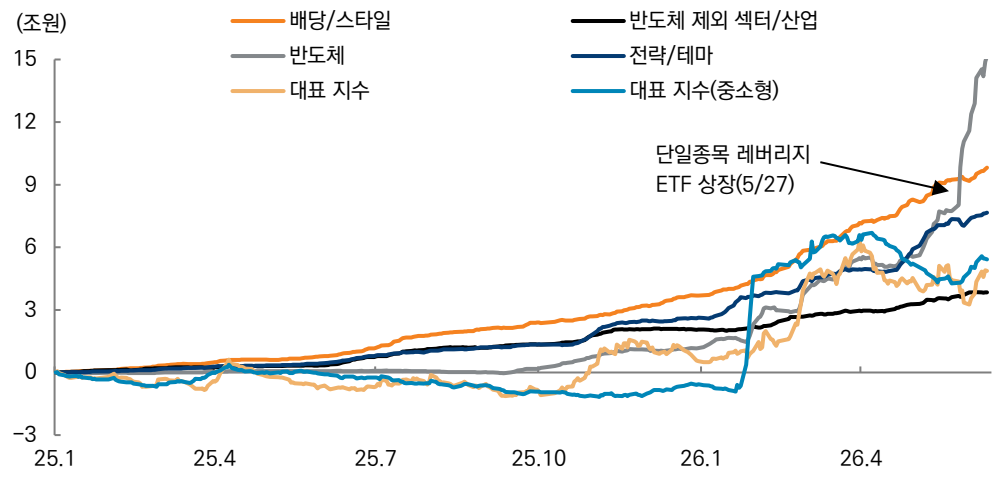
주: 5/27~6/12 거래대금 및 개인 순매수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한국 주식형 ETF 카테고리별 개인 순매수(기간별)



주: 각 기간별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ETF에 대한 개인 순매수 합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한국 주식형 ETF 카테고리별 개인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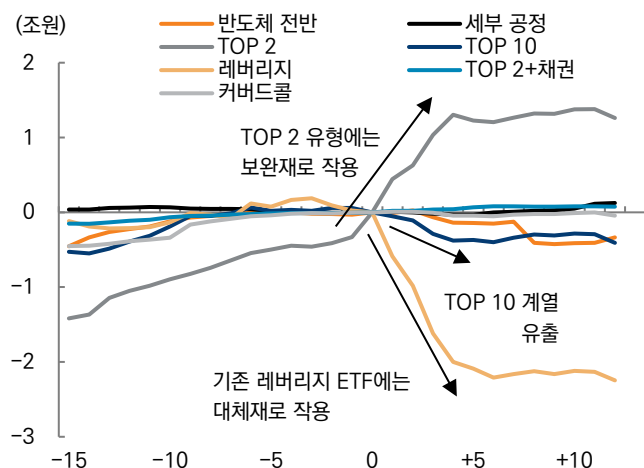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쏟림은 반도체 산업 ETF 내에서도 나타났다. 아래 <그림 4>는 상장일 전후 반도체 ETF 내 카테고리별 개인 순매수 추이로, 대체 관계가 분명한 기존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서는 순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최대 순매도 규모는 -2조 2천억 원이었다. TOP10, 반도체 산업 전반(KRX 반도체 지수)에서도 각각 -3천억 원, -4천억 원 규모의 매도가 발생했다.

한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을 극대화 한 TOP2 계열은 오히려 자금이 유입됐으며 규모는 +1조 3천억 원 가량이다. 수급 쏠림이 발생하며 두 개 종목의 상대 강세가 나타나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두 개 종목 비중이 높은 ETF를 통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레버리지 ETF를 편입할 수 없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완재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산업 커버드콜, TOP 2+채권형에서는 각각 -428억 원 매도, +742억 원 매수가 발생해 큰 움직임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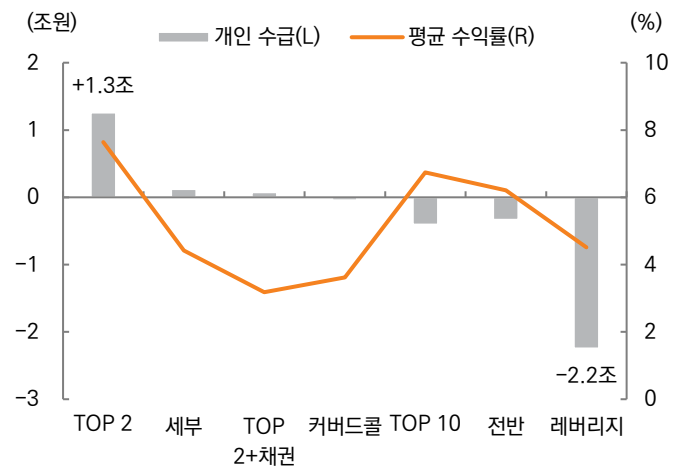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고비중 ETF로의 자금 쏠림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 반도체 종목에서는 수급 이탈로 이어지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그림 5>는 유형별 개인 수급 규모 및 평균 수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소부장 등이 포함된 세부 유형, 레버리지 ETF군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상장일(5/27=0) 전후 반도체 ETF 유형별 개인 순매수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유형별 개인 수급 및 평균 수익률(5/26→6/12)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 현물 시장 영향 및 대응

#### ETF 보유 비중 과대군 상대적 약세 관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규모 및 다른 투자 주체(외국인 등)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ETF 자금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두 종목을 제외한 반도체 산업 종목의 경우 ETF 자금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표 1>에서는 2026년 5월 21일 기준 반도체 ETF에서 보유 중인 잔고 금액 상위 종목 및 유형별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ETF 고비중, 특히 자금 유출 규모가 컸던 기존 레버리지/TOP 10 내 고비중 종목의 경우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6, 7). 특히 기존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잔고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은 모두 하락하였으며, 20% 이하는 상대적으로 자금 영향이 낮았다.

표 1. 반도체 ETF 내 보유 잔고 금액 상위 종목(2026.5.21 기준, 주황색 음영: 하락률 -10% 초과, 하늘색 음영: 하락률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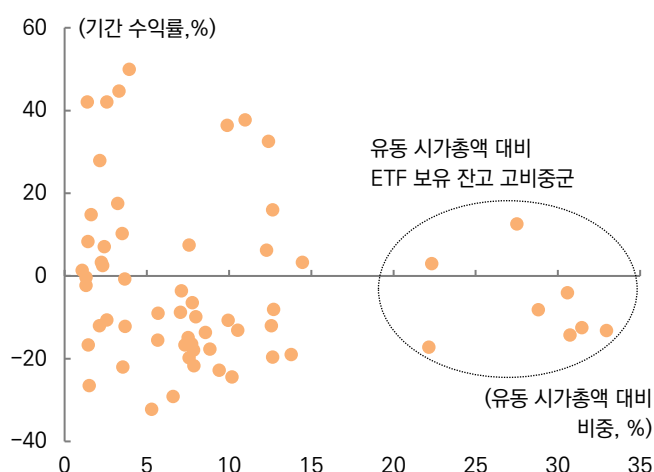
종목명	유동 시가총액 (억원)	잔고 전체 (억원)	유동 시가총액 대비 비중(%)	유형별 비중(%)								수익률 (%)
				전반	세부	TOP 2	TOP 10	레버리지	TOP 2+채권	커버드콜		
SK하이닉스	10,537,119	150,359	1.4	0.4	0.1	0.2	0.5	0.2	0.1	0.0	8.3	
삼성전자	13,815,078	116,120	0.8	0.2	0.0	0.1	0.3	0.1	0.1	0.0	-0.2	
한미반도체	138,681	43,628	31.5	6.4	5.0	1.6	14.2	3.9	0.0	0.3	-12.5	
삼성전기	661,354	25,995	3.9	1.5	0.2	2.2	0.0	0.0	0.0	0.1	49.9	
DB하이텍	53,498	16,446	30.7	6.6	0.9	1.4	14.4	6.8	0.0	0.6	-14.3	
리노공업	51,456	15,736	30.6	6.4	4.3	1.6	14.3	3.7	0.0	0.4	-4.0	
이오테크닉스	46,587	13,424	28.8	6.6	3.5	0.4	13.7	4.0	0.0	0.6	-8.2	
원익IPS	40,702	11,198	27.5	6.4	2.6	0.2	14.2	3.5	0.0	0.6	12.5	
ISC	23,785	7,840	33.0	6.2	5.2	3.4	13.7	3.8	0.0	0.6	-13.2	
HPSP	34,403	7,678	22.3	4.6	2.7	1.2	10.3	2.9	0.0	0.4	3.0	
주성엔지니어링	57,641	7,148	12.4	6.5	3.1	0.0	0.0	2.6	0.0	0.2	32.6	
SK스퀘어	1,052,647	6,678	0.6	0.0	0.0	0.5	0.0	0.0	0.0	0.1	4.2	
이수페타시스	68,909	4,901	7.1	0.0	3.5	3.6	0.0	0.0	0.0	0.0	-3.6	
솔브레인	17,930	3,972	22.2	1.4	2.2	0.0	14.0	4.1	0.0	0.5	-17.2	
심텍	31,328	3,846	12.3	4.9	4.4	0.2	0.0	2.6	0.0	0.2	6.2	

주: 수익률은 2026.5.21 종가 대비 2026.6.11 종가 기준 수익률, 잔고 금액은 개별 ETF가 보유 중인 종목별 잔고의 유형별 합산.

유형별 비중은 각 유형별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잔고 금액이 유동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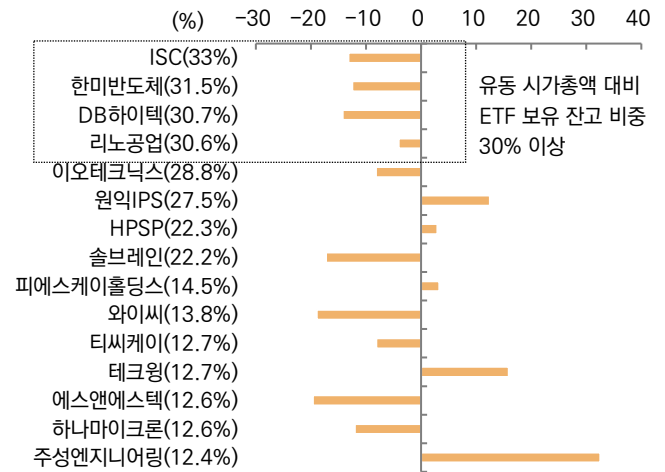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반도체 ETF 편입 종목의 비중-기간 수익률(5.21→6.11)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편입 비중 TOP 15의 기간 수익률(5.21→6.11)



주: 편입 비중은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보유 잔고의 비중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ETF 대응: TOP 10/KRX 반도체 지수 추종 ETF군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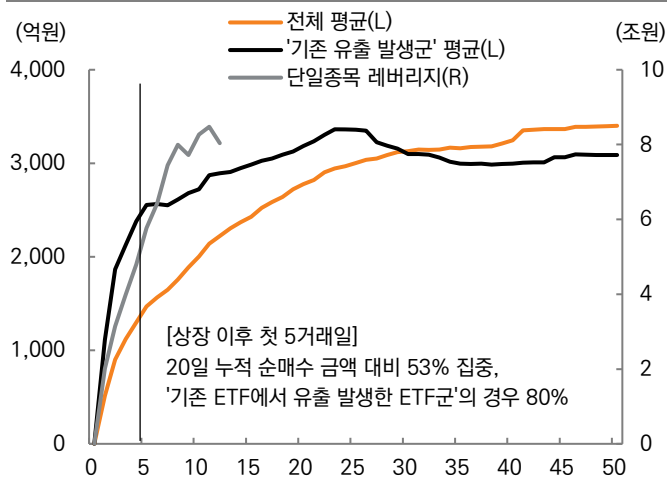
6월 중순 이후 반도체 유입 수급은 'TOP 2' 계열 보다는 'TOP 10' 및 'KRX 반도체 지수' 계열 ETF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수급이 일정 부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2) 6월 정기 변경 이후 변화된 편입 비중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종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 신규 수급 한계와 관련 누적 순매수가 8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규 매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그림 8). 특히 레버리지 특성상 단기 매매가 잦은 만큼 수급이 지속적으로 쌓이기 어려운 구조이다. 반면 연금 계좌 내 운용이 가능한 정방향 ETF, 특히 배당/장기 보유가 주된 목적인 커버드콜, 주식+채권 혼합형의 경우 보다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그림 9)는 한국 주식형 ETF의 유형별 잔고 좌수(주식 수) 증감 누적 추이로, 각 유형에 해당되는 ETF 전체 잔고 좌수의 증감분을 일별로 산출했다(신규 상장분은 제외). 레버리지군의 경우 누적 잔고 좌수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커버드콜 및 주식+채권군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잔고 좌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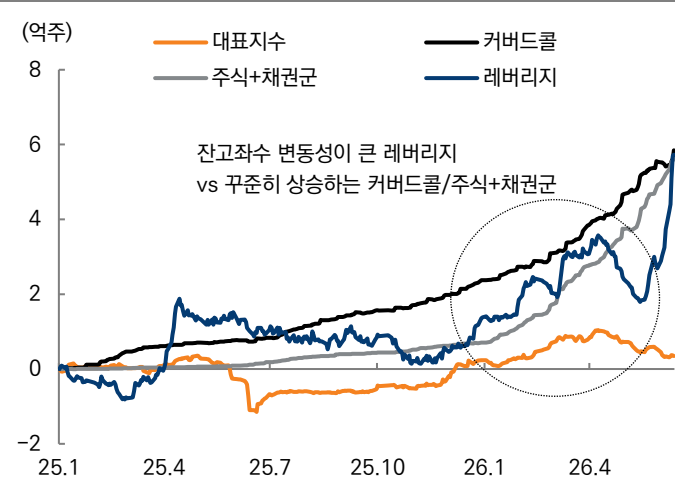
즉, 개별 종목 입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자금 유입이 일단락 되는 시점에서 정방향 및 커버드콜/주식+채권형 ETF의 영향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림 8. 신규 상장 이후 누적 순매수 평균 추이**



주: 신규 상장 후 1,000억 원 이상 순유입 케이스 대상.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한국 주식형 ETF의 유형별 잔고 좌수 증감의 누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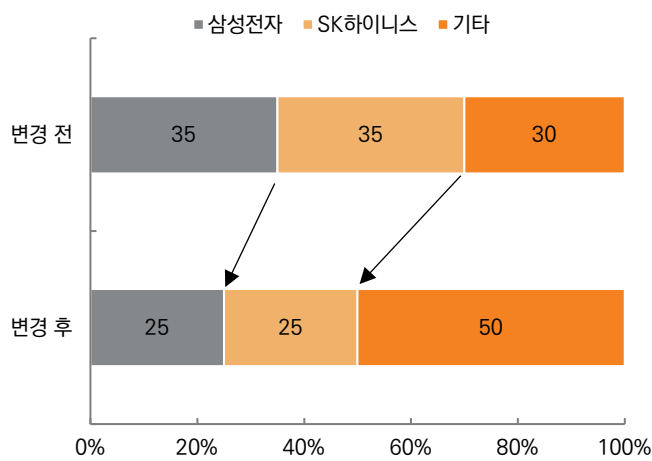


주: 신규 상장분을 제외하고, 각 유형에 해당되는 ETF 전체의 일별 잔고 좌수 변동의 누적치.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6월 정기 변경은 수급 강도 측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종목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종목 비중 상한(Cap)'으로 인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비중은 낮아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 종목의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정기 변경 전과 동일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높아진 비중을 반영하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 종목에는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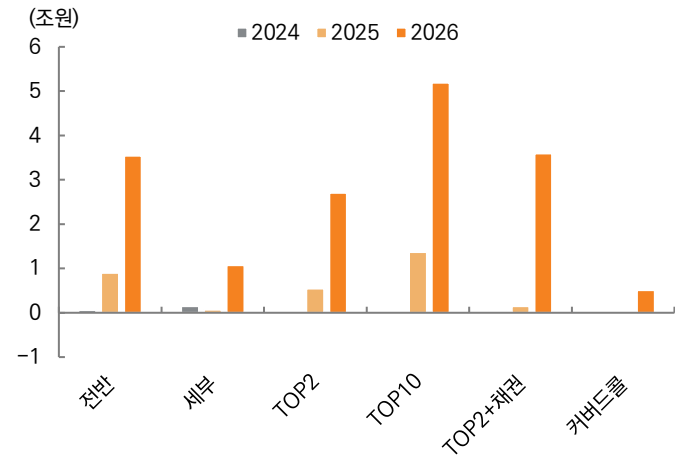
예를 들어 기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비중이 35%, 나머지 종목 비중이 30%인 ETF가 있고 Cap이 25%라고 가정하면, 정기변경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은 각각 25%씩, 나머지 종목은 50%로 조정된다. 동일한 100억 원이 유입되더라도 나머지 종목에는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 유입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10).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전 자금 유입 추이를 감안할 때, TOP 10 계열 및 반도체 산업 전반을 추종하는 지수형 ETF 역시 현재 순유출 정체 국면에서 자금 유입 전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림 10. 종목 비중 상한(Cap)에 따른 비중 변경 예시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레버리지 제외 반도체 ETF 유형별 연간 자금 유입 추이



주: 2026.5.22까지 합산.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정리하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인 순매수 추이를 감안할 때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급격한 수준의 자금 유입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다. 지수 정기 변경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 종목의 비중 상향으로,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 종목에 변경 전 대비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 중순 이후 반도체 유입 수급이 'TOP 2' 계열 보다는 'TOP 10' 및 'KRX 반도체 지수' 계열 ETF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